



**아태장애인경기 공로 표창**  
 해충 부산 용호복지관장은 2월 24일 부산시청 국제소회의실에서 제8회 아태장애인대회 성공 개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일주문



**10회 대구불교대학 졸업식**  
 지성 대구불교대학장은 2월 23일 동화사에서 졸업생과 재학생 300명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대구불교대학졸업식을 가졌다.



**해인시승가대 신입생 모집**  
 지오 합천 해인사 승가대학장은 12일까지 해인사 승가대학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한다.(055)931-1016



**법전대종사 57주기 추모제**  
 법타 영천 은해사 주지는 2월 26일 은해사에서 신도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고경당 법전대종사 57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경기도 극락사서 금강경 강좌**  
 지육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6일 이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0분~3시 경기도 광주 극락사에서 금강경 강좌를 실시한다.



**유신아 천도 49일 기도**  
 영도 고성 건봉사 주지는 9일 '조상령 및 유신아 천도 49일 기도법회'를 입재한다.(033)682-8100



**해광사 부처님 점안식 봉행**  
 해원 동국대 교수는 8일 오전 10시 서울 평창동 동대 바구니 기숙사(사감 해원인 해광사 석가모니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한다.



**중앙선관위원장 표창 받아**  
 자용 서울 수곡사 주지는 최근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창을 받았다.



**대구지하철 참사 추도식**  
 지관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은 2월 27일 복지센터 강당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 추도식을 열고 상시 분향대를 마련했다.



**중앙대 교수 취임·강의**  
 박문석 문화관광부 차관은 중앙대 교수로 취임, 3월부터 예술대학원에서 '문화정책' '예술행정학' 등을 강의한다.



**'노년의 성생활' 주제 강연**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은 13일 오후 2시 서울 능인복지관에서 노년의 성생활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02)737-8803



**전북불교대학 졸업식 거행**  
 강건기 전북불교대학장은 2월 23일 법당에서 전북불교대학 불교학과 15회, 법사와 10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보현불교대학 10기 졸업식**  
 오상현 대전 보현불교대학 이사장은 2월 22일 보현문화회관 2층 법당에서 불교대학 제10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GA코리아 대표 취임**  
 김영국 전 고흥길 국회의원 보좌관은 3일자로 'GA 코리아'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02)723-0185

지역불교 일구는 사람들 ⑧

정한담 (전남대 교수불자회장)

퇴직교사들로 경전연구모임 결성  
강연보시금 받아 불경마련·보급

"하나하나 글을 써서 만들었던 정성이 담긴 경전을 접하다보면 눈물이 납니다. 부처님 말씀을 후학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굳건한 신심을 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이 좀 더 쉽게 경전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풀이하는 저술활동을 벌이는 것이 정 회장의 작은 소망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포교를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초청강연이나 신도회 강의가 있을 때에는 주례나 강연에서 받은 보시금으로 경전을 제본해 나눠주고 불교의 진정한 사상이 바르게

전해지도록 노력해왔다. 이렇게 보급한 경전이 수천 권에 달한다. 성륜사 조실 청화스님의 유발상좌이기도 한 정회장은 청화스님의 법문을 녹취해 '마음공양'이라는 대중

를 지녀온 대표적인 불자다. 전남대 법대 교수로 지내면서도 경전연구 등 불교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바쳐왔다.

청화스님 법문 녹취 '마음공양' 포교지

"불자는 경전에 담긴 정성과 신심을 아로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역경과 고난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경전 속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지요."

극성 성륜사 광주지역 신도모임인 금륜회장을 11년 동안 맡아온 정 회장은 경전 연구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이같은 노력 때문에 퇴직교사들로 구성된 법화경 연구모임, 산스크리트 원전 연구모임 등 경전 공부모임이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사무실에서 경전을 탐독하는 모습을 본 주변 동료들로부터 경전을 끼고 사는 책벌레라는 말을 들을 정도다. 퇴직 후에는 후학

포교지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불교세가 약한 호남지역의 불교 활성화를 위해 재가불자들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중심도량과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펼치는 신행모임이 필요합니다. 이같은 기반 위에 신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스님들이 함께 한다면 지역불교 활성화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정 회장은 불자들이 자신과 가족만의 안위를 바라는 소아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주변과 사회로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한국禪문화 호주에 심을 터"

호주한국문화원 개원 앞둔 정진호 대표



월 개원을 계기로 곧바로 선 센터와 청소년 수련관, 전시관, 공연장, 전통가마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정 대표는 "한국문화회를 통해 인간 삶의 보편적 진리를 일깨우는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설화할 계획"을 밝혔다. 학술재단과 연구소 등도 세워 각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과 문화운동에 대한 근간을 개발해 낸다는 계획이다.

호주 시드니에 우리 전통 문화와 선 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한국문화원이 설립된다. 오는 5월 3일 개원을 앞두고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는 정진호 호주한국문화원 대표. 그는 "호주한국문화원은 4만 명이 넘는 교포와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장 한국적인 것의 향기가 무엇인가를 일깨우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1996년 시드니 외곽에 예비뉴듀어 지역에 6천 4백 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작년 9월에는 호주한국문화원 재단이 설립되면서 문화원 설립이 본격화 됐다. "5

임연태 기자 yllim@buddhapia.com

고침 본지 410호 9면 단체장 동정 중 박준영 SBS 불교법우회 고문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불자 '100인에 듣는다' 준비중

올해의 재가불자상 수상 김태제 원장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분이 많은데 이런 상을 받게 돼 송구스럽 마음뿐입니다."

김 원장은 2년 전 티베트 불교 지원금으로 10만

달러, 지난 해 인도 불교 지원금으로 10만 달러를 쾌척했다. 또 사재를 털어 수원 팔달문 근처에 경기불교문화원을 설립, 지역불교운동에도 힘쓰고 있다. 헌신적으로 일하는 재가 지도자들이 있어서 불교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는 김 원장은, '생활 불교'를 표방하고 있는 김 원장은, 스님뿐만 아니라 재가 불자 지도자들도 초경해 법문을 듣는 '100인에게 듣는다'를 준비 중에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성재도 씨 청와대 행정관에



민족문화정책연구소장인 성재도(46·전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사무국장) 씨가 2월 25일자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실 시민사회 2 행정관(3급)에 임명됐다.

성 씨는 83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 부산지부장, 95년 부산 불교인권이 사무처장, 2002년 청정화합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고 88년부터 부산불교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부산선대위 부산진을 지구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노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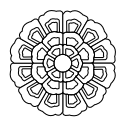
현대불교 제8회 신행수기공모 시상식

현대불교 제8회 신행수기 시상식이 2월 22일 서울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렸다.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 스님을 비롯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 관음종 총무원 부원장 지섭스님, 총회종 총무부장 현오스님, 수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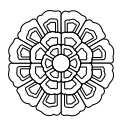


안양불교대 110명에 졸업장

안양불교대학 졸업식이 2월 20일 지장선원 법당에서 열렸다. 제3기 경전반, 제5기 기초반 등 총 110명은 가족들의 축하 속에서 졸업장을 받았다. 이날 동국대 권기종 교수는 "가족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결과 무사히 부처님의 정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양불교대는 13일 오후 2시 기초반 제6기 입학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 드립니다.



법장스님의 종단운영 4대 기조

"수행과 전법중심의 종단,  
 전 종도가 참여하는 원용살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종단,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불교를 만들겠습니다."

조계사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문의: 02)732-2115 / 홈페이지: www.jogyesa.org